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 골든클럽 회보

## GOLDEN CLUB NEWSLETTER

JULY 2022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23



### 골든클럽 피크닉

골든클럽 피크닉 날인 6월 16일, 목요일은 일주일 내내 화창한 날씨가 예상된다는 일기예보를 뒤집고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어찌할까 걱정하는 카톡 방에서 ‘그 동안 골든클럽 피크닉에는 비가 온 적이 없다.’는 권정덕 선배님의 말씀처럼 오전 10시를 전후로 비가 말끔히 그치고 피크닉이 가능한 날씨로 바뀌었다. 어정쩡했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에 Rockland Lake State Park에 회원들이 모였다.

이번 피크닉은 특별히 골프대회를 참가하지 않는 회원들의 친목을 위한 좋은 기회였다. 50 여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갈비와 고등어구

이, 오징어무침 과 모듬전, 치즈와 과일등으로 식사를 마치고, 홍종만 회장의 피크닉참석 감사 인사후에 금영천 뉴욕 동창회장의 여러 가지 생활에 유용한 상품이 준비된 게임으로 즐거운 날을 보냈다. 준비했던 와인은 공원의 규정상 마실 수 없어 아쉬웠고 이만제 회원이 풍성하게 제공한 맥주와 음료 등은 비 온 후의 쌀쌀한 날씨 관 계로 집으로 가져가서 계속 피크닉을 enjoy하라는 김정필 사무총장의 재치 있는 말로 모든 회원들이 나누어 챙겨 집으로 가져갔다.

다시 한번 피크닉을 위해 음식과 여러가지 준비를 해 주신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 7월 골프대회는 Sunset Valley에서

7월 골프대회를 Sunset Valley에서 다시 열게되었습니다. 지난 4월대회때 몸이 안풀려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만회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약은 12시 30분 shotgun을 40명으로 해두었습니다.

일정을 확인해보시고 일주일 전인 7월 5일까지는 등록(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짜: 7월 14일 (목요일) 12시 30분 Shotgun (11시 30분까지 도착바랍니다.)

장소: Sunset Valley Golf Course

47 W Sunset Rd, Pompton Plains, NJ 07444

티박스: 선호하는 tee box (white/gold/red)를 등록시 알려주세요

회비: \$120

문의: 김정필 (201-965-7759)

## Barnes Museum 방문

골든클럽에서는 이번에 Phila에 있는 Barnes Museum을 방문하려고 기획하였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특히 후기 인상파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전시되어있습니다. 고급 관광 버스를 대절하여 플러싱에서부터 필라델피아까지 편안히 모실 예정입니다.

날짜: 7월 18일 (목요일)

8시: Flushing 공영주차장 출발

9시: 한남 돌식당 앞 출발

11시: 서재필 의사 기념관

12시: 점심

1시-4시: Barnes Museum관람

4시 - 귀가

회비: \$50

문의: 김정필 (201-965-7759)

## 최속희 회원 선종



지난 6월 5일 고 최속희(사대65) 회원이 지병으로 이승을 하직하셨다. 영결식은 6월 9일 Ridgefield, NJ 소재 중앙 장의사에서 불교장으로 친지, 동문등 많은 조문객이 유가족을 위로 하였으며, 부군 박준구 회원은 장례를 마치고, 골든클럽 후원금 \$1,000을 회사 하였다.

고인은 NJ의 대학에서 오랜 동안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강의했으며, 10여년 전 불문에 입문한 후 불교 고전 경전을 원문으로부터 한글로 번역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 스님의 한국 방문을 주선하고, 몸소 통역하여 한국 불문의 국제화에 일조하셨다, 조문객 중 특히 미국, 스리랑카 스님들이 참석하여 고인의 끊임없는 불법의 추구하시던 자세를 칭송해주었다.

## 오미자 특선 선물 구입 안내

지난 3월 26일 신년교례회 특선선물로 건강음료 오미자청(A set)을 드렸습니다. 조금 여유있게 준비하였으니, 더 필요한 분은 연락주시고, A set에 포함된 보은 Vogue Bottle 없이 오미자청만 추가로 필요하면 B set를 드릴 수 있는데 실비가격은 A set \$80, B set \$35입니다.



이준행 회장님께서서는 현재 뉴욕 방문 중인 양자생명과학원 정규범 박사로부터 보행훈련 특별 치료를 받고 계시다. 6월 10일 성기로, 계동휘, 그리고 홍종만 회원 부부가 이회장님을 찾아 뵙고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오후시간을 즐겁게 보냈는데, 이 회장님께서 6월 16일 피크닉이 잘 진행되기 바라신다며, \$1,000 추가 후원금을 챙겨 주셨습니다. 사진 속 앞줄은 오른쪽으로부터 홍종만, 이준행 회장님, 계동휘, 성기로, 정규범박사 (뒷줄) 성광자, 홍예경, 계경애, 이호일(자연과학대 80)



제 31차 평의원 회의가 캘리포니아주에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었다. 본국 김종섭 총동창회장과 뉴욕지부 평의원 대표 와 배우자 등 11 명이 금요일 세미나후 디너에서 사진 촬영 하였다. 특별히 에드워드강 동문과 신용남동문이 오세정서울대 총장 상을 수상하였다.

## 회원동정



Split Rock Golf



Rockland Lake Picnic



Rockland Lake Picnic



Rockland Lake Picnic



왼쪽부터 홍정표 Steve Bernstein 홍선경 송근숙 조승자



이 준 회원은 지난 6월 16일 피크닉 때, BBQ 식사후 사소한 부주의로 다리에 통증이 있어 행사를 마치고 Englewood 병원 검사 결과 고관절 부상으로 입원수술을 받고 현재 은혜요양원에서 회복중에 있다.



뉴욕 지부 협찬의 Queens Theater 에서 6월 30일에 열린 뉴욕 국악 축전에 참가한 동문들이 음악회 후 사진을 같이 했다. 서울대 국악과 학생 8명이 이 연주회에 참석 하였고 30 명 넘는 동문이 음악회 참석 하여 좋은 시간을 보내었다.



지난 6월 15일 오랫동안 한국, 하와이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강홍 회원 환영 골프모임 후 곡선섭 회원 댁에서 저녁식사

## 6월 골프대회 보고

## Korean Cultural Characteristics Observed during the Golden Club Picnic Event

■ Kunsook Song Bernstein (Nursing, 66)



6월 16일 브롱스 Split Rock에서 골프대회가 회원 45명이 참석하고 화창한 날씨속에 Shotgun으로 열렸다. 올해들어 가장 많은 회원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는 Forward tee의 성적이 White tee/Red tee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좋았다. 이날의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Group	상	상금	이름	Gros	Net	Over
1 League (Gold)	1등	60	박희병		15	-5
	2등	40	김영덕		23	-3
	3등	20	성기로		22	-1
2 League (White+ Lady)	1등	60	김정필		21	2
	2등	40	김문경		25	3
	3등	20	이민제		32	3
Close pin	3	40	김영천			
	6	40	한영수			
	12	40	송웅길			
	15	40	우규환			
BEST EFFORT		20	배상규			

그리고 이번 6월 대회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수입			\$	5,280.00
	참가비		\$	5,280.00
지출			\$	4,978.00
	Green fee/dinner		\$	4,200.00
	Tip		\$	60.00
	김밥		\$	298.00
	상금		\$	420.00
결산			\$	302.00

I had two reasons in my decision to persuade my husband (Steve) who is a Caucasian to attend the recent Golden Club picnic with me: 1) Be acquainted to the Golden Club members, especially some of them who planned to go the Korea tour this September since we will join the group, and 2) Be familiar with unique culture formed by retired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alumni group. So, when I was asked to write a column for the Golden Club Newsletter, I asked Steve what was his experience and impression of the picnic. He said, "Well, it's same with Hassidic Jewish culture, men and women always sit at the separate tables and mingle with only men with men and women with women. Here Koreans are doing the same." Other than that, he found people were kind in general and was impressed by some of the members who approached him to say a hello.

I noticed that there were many wives of the male members but did not see any husbands of the female members except Steve at the picnic. This is customary practice within Korean culture, not necessarily within the Golden Club. Regardless, since I joined the Golden Club and attended the mostly Golf outings, I found myself feel like being HOME (고향) starting this picnic. I found myself relaxed and joined the group games. Then I started to notice many members' dedication to activities that made the picnic successful: Preparing, Cooking, Serving, Moderating, managing games, playing a music instrument ... The most memorable image was how everyone worked with care and dedication. For example, a female member\*,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picnic, unceasingly cooking, serving, making sure that everyone had enough food and be content was truly exemplary. Of course, I do not need to comment on the leader\* of Golden Club anything here since everyone knows his dedication and commitment. Still, his attention on well-being of each one of more-senior Golden Club members was an example of the best of Korean respect of elders.

All the members who worked so hard, THANK YOU!!!!

*Note: Persons marked with \* in the text were addressed in real name in the original text. However, they declined to be addressed as such.*

## \*아름답고 신비로운 반스 미술관

\*기억에 생생하게 남은 반스 미술관

■ 여주영 (명예회원)

7월이 되면 유독 생각나는 것이 있다. 4년전 모처럼 마음먹고 방문한 필라델피아의 '반스 미술관(THE BARNES FOUNDATION)'이다. 아직도 이 미술관은 정말 신비로운 곳으로 내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는 미술관, 이곳에는 인상파, 후기인상파, 근대회화와 지중해, 아시아, 아프리카 조각, 아메리카 원주민의 도자기, 보석, 섬유를 포함, 미국 회화와 장식 예술, 유물 등이 가득 보유되어 있다.

입구부터 눈에 들어오는 물이 무더운 여름철을 시원하게 달래면서 미술관에 들어서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사방의 벽면이 명화로 가득 차 있다. 자그마치 4,000여점. 이는 모두 반스 박사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것들이다.

오귀스트 르누아르, 폴 세잔느, 앙리 마티스, 파블로 피카소 등의 멋진 그림들이 나의 발길을 정신없이 헤메도록 만들었다. 누군가 이 미술관을 방문하곤 나도 이런 미술관 하나 만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이 미술관은 아름답고 매혹적인 곳이다. 그림 사이에 화려한 은장식, 실내를 장식하고 있는 멋진 엔틱 가구들... 갑탄사가 절로 나오게 하는 화려함의 극치다.

뉴욕에서 흔히 보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모마 같은 대형 미술관은 아니지만 볼수록 친근감이 가고 떠나고 싶지 않게 하는 곳이다. 기회가 되면 또 가고 싶게 만드는 곳이기도 하다.

반스 미술관이 유독 아름다운 이유는 특별한 전시 방식에 있는데, 이는 설립자인 의약업자 알버트 C. 반스가 살아생전 지시하고 유언한 뜻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스는 신약 개발로 큰 재산을 모아 미술품을 수집해 자신의 저택을 미술관으로 꾸며 후세들에게 많은 배움과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그의 아름다운 정신이 담긴 반스 미술관을 골든클럽 회원들과 다시 찾게 되었다는 건 나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필라델피아 일일 여행에서는 반스 미술관 탐방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서재필 박사의 기념관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이곳은 내가 아직 가본 곳은 아니지만 기자 시절, 뉴욕의 의학박사 흥준식씨 등 몇 명의 한인이 뜻을 갖고 뉴욕에서 지부를 설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 기사도 자주 쓰곤 했기에 남다른 관심도 있는 곳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뉴욕에 지부 설립은 수포로 돌아갔다.

서재필 박사는 1884년 개화 정권 수립을 위해 김옥균, 흥영식, 유치



호 등과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3일천하로 끝나게 되어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 한국인으로는 처음 미국 시민권자가 된 인물이다. 서재필 박사는 의사이자 독립운동가로서 한국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 발간, 독립협회 등을 설립해 민중을 계몽하고, 경술국치 이후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헌신,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 대한민국장에 추서되었다.

현재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 기념관을 운영하는 서재필 재단은 처음 필라델피아의 한인 전문의들이 의료사업으로 시작, 치료비로 나오는 돈을 모아 재단을 운영하면서 서재필 박사가 생전에 살던 생가를 매입해 그곳을 기념관으로 보존하면서 서재필 박사의 뜻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잇고 있다. 서재필 박사는 미주한인들에게는 정신적 지주나 같은 인물이다. 그 점에서 그의 업적을 되살리며 그의 생각을 찾는 일은 더 없이 뜻 깊고 의미 있는 일이다.



# 세 상 지 내 기

다시 (생동)  
피구 지는 오뉴월 이잖냐  
살아 좋은 세상 / 이 계절 이 신록

세상 지내기  
왜  
중얼중얼 살아가기

외양 매무새  
내면 껍질  
여태 여전 힘들 걸랑

행여 낮이설어  
싫거들랑  
왜

... 이러지 그러냐

사뭇 눈에 익구  
지 익숙한 거리루  
하모

눈설미 / 세월파라  
맘 설미 / 계절마다  
친숙했던

...

못사람 들  
지 들 표정  
대개 무심한

어깨 어깨  
스치구  
부딪는

싫다 싫다  
혐오했어두 그러며  
무관히 낮익은

그러구러 친숙한  
'우리'  
얼굴 얼굴 / 거리 거리

접구 사는 맘  
그래두 부딪는 흔한 미소  
혹은 두구 무릎 정든이 들

'같이하는' 맘 / 함께 여직 걷는맘  
두구두구 칠팔십고래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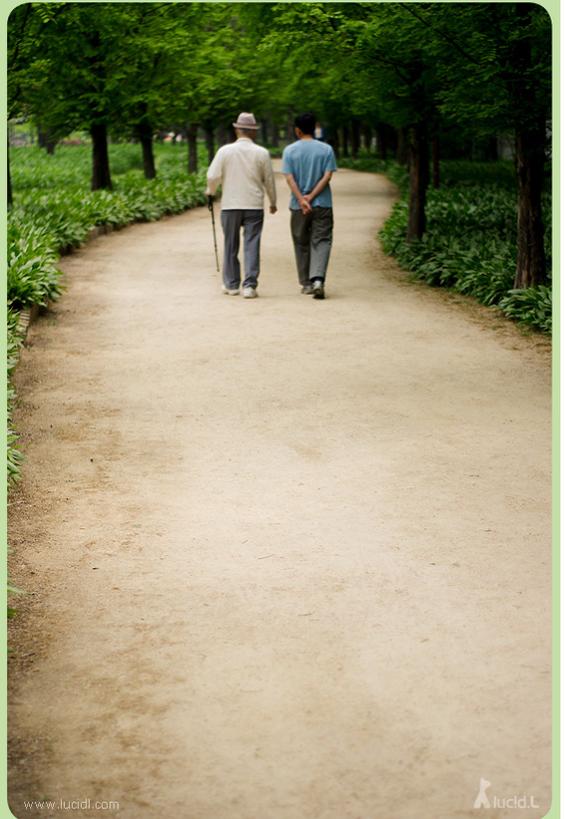
사뭇 이웃갈아라 내 혈육 갈아라  
... (인연진 '동행'이잖냐)

더러심술 투정 그거이  
여태두구 낮이설구  
여직껏두 역겹걸랑

오해다시  
익숙한 거리  
친숙한 데 루

섞여 어울려  
행여 석양껏 걸어 보라구  
중얼중얼 오가는 미소

지내 보라구  
중얼 중얼 부딪구  
웃으며 살아보라구 .



www.lucid.com

lucid.L

# Frank Sinatra -- Voice of the 20th Century

■ 정도현 (공대57)

FRANK SINATRA, a skinny, undernourished looking Italian kid from Hoboken, NJ became the most celebrated popular Singer/Entertainer of the 20th Century. It is quite a remarkable story. He was born in 1915 and died 1988 at the age of eighty-two of which he had a well over 50 years of career as singer and movie actor. He was one of the bestselling music artists of all time, having sold an estimated 150 million records worldwide. Unlike most of the 50's singers who faded away when new music genres emerged, he maneuvered his singing style such a way that he not only survived but also surpassed all of them --- Rock'n'roll, Elvis Presley, Beatles, Rolling Stone, Michael Jackson, Disco, what have you.



SINATRA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intimate, easy-listening vocal style of Bing Crosby and began his music career with the swing era of the big band. While Sinatra never learned how to read music, he worked extremely hard to improve his abilities in all aspect of music. A perfectionist, renowned for his unique sense of style and performing presence. After Sinatra's death, American Music critics called him "The Greatest Singer of the 20th Century." His artistry stems from his fine, natural understanding of music. He also had far more voice than people think he had. He had a very tender Baritone sound delivered in the lyrical perfection in the form of an art of intimacy. When people listen to his music, it feels like he is whispering a love story in music with his diction becoming "precise and meticulous". His timing was impeccable, according to music critics, allowing him "toy with the rhythm of a melody, bringing excitement to lyrics" while play it all the way through seemingly without breathing with his own exceptional breath control.

In the 50's, Sinatra transformed from a fragile gentle boy balladeer of the 40's to a virile adult mature voice with a sense of Happiness and Hurt. Collaboration with a few renowned arrangers such as Nelson Riddle, Sinatra delivered many of his recording studio masterpieces with the billboard number one tag. Even when his voice began to deteriorate,

he was able to perform a few great songs such as "Stranger in the Night", "My Way" & "New York, New York". He also had a great film career in Hollywood performing not only in the music films but also acting in the dramatic role such as "Sgt. Maggio" in "From here to Eternity" in which he won Oscar Award. He also had side show called "Rag Pack" in Las Vegas with his side kicks, Dean Martin & Sammy Davis Jr, romping around with music and comedies. It helped establishing Vegas from dusty place to the Casino / Entertainment Capital.

Sinatra had turbulent personal life. His fiery temper got into many confrontations. He had scandalous relationship with Ava Gardner and young Mia Farrow. At times, he was suspected of close ties to mobsters. He was quite active in politics spanning from FDR to JFK & Reagan. He was also very generous with his financial supports to many causes. His legacy stems from his unique stylistic ability to capture an audience, delivering lyrics as if telling a story musically with the rare combination of voice and showmanship. He was honored many times and many places including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in 1985.

An Italian boy from Hoboken made all the way to become the "top Icon of his profession" -- An American Story !

회원 명단 (114명 / 2022-6-24)

강교속	김병순	최숙희	오유섭	이준행	최병우
강에드	김상만	박희병	오인석	이준희	최수용
강영선	김승호	배상규	유규환	이행순	최순채
계동휘	김영덕	성기로	유무영	이흥빈	최진영
고애자	김영만	손갑수	윤선구	임도혁	최철용
곽상준	김우영	손경택	윤종숙	임창우	최학주
곽선섭	김익성	손대홍/	윤현남	임호순	추재욱
곽승용	김인형	남종현	이강홍	정도현	한영수
구달회/	김정필	손옥화	이민제	정수일	한태진/
권정덕/	김종울	송근숙	이상무	조달훈/	한용오
권영대	김창수	송웅길/	이 준	조승자	한태진/
권태전	김치갑	송현자	이대연	정해민	안용희
권태전	김태일	송학린	이대영	조상근	허용웅
금영천	김한중	송혜순	이범선	주상선	허유선
김광수	김현중	신진식	이수호	주재양	홍사만
김광현	김용면	신응남	이용대	진봉일/	홍정표
김동건	민준기	양인회	이전구	천병수/	홍지복
김문경	박기환	오순문	이종대	천종화	홍종만/
김문연	박준구/	오용호	이종석	최구진	홍예경

2022년 연회비 납부 명단 (82명 / \$8200 / 2022-6-24)

강교속	김문경	박기환	송학린	이민제	조달훈	최철용
강에드	김병순	박희병	신응남	이상무	조승자	한영수
강영선	김상만	배상규	신진식	이용대	진봉일	한용오
고애자	김우영	성기로	오순문	이전구	정도현	한태진
권정덕	김종울	손갑수	오용호	이종대	정해민	안용희
권태전	김창수	손대홍	오유섭	이종석	주재양	홍선경
계동휘	김태일	남종현	오인석	이 준	천병수	홍종만
곽선섭	김치갑	손경택	윤선구	이행순	천종화	홍예경
금영천	김정필	손옥화	윤현남	이흥빈	최병우	홍정표
김광수	김한중	송근숙	이강홍	임도혁	최순채	홍지복
김광현	김현중	송웅길	이대연	임창우	최진영	
김동건	민준기	송현자	이대영	임호순		

2022년 후원금 기부 명단 (27명 / \$15600 / 2022-6-24)

강에드 300	김한중 300	신진식 300	이준행 3000	한용오 200
곽선섭 100	박준구 1000	오용호 300	이행순 200	한태진 500
권정덕 200	송학린 1000	오유섭 100	임호순 300	홍종만 1000
금영천 300	성기로 300	이강홍 200	정해민 500	
김승호 1000	손경택 1000	이전구 1000	천병수 300	
김종울 200	신응남 500	이종대 200	최철용 300	
동창회 1000				

2022년 입회비 납부 명단 (5명 / \$1000 / 2022-6-24)

김치갑	송혜순	이민제	임창우	허유선
-----	-----	-----	-----	-----

발전기금 기부명단 (1명 / \$20,000 / 2022-5-26)

이준행 20,000

골든클럽 2022년 행사 일람 (2022-6-24)

1월	23-29일	플로리다 골프트립 (12명 참가)
3월	26일(토)	신년교례회 - Atrium of Tenafly (81명 참가)
4월	14일(목)	Hiking - Lake Skannatati -취소
	21일(목)	Golf Outing - Sunset Valley (38명 참가)
5월	18일(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 Wallkill (39명 참가)
	26일(목)	여성회원 피크닉 (18명 참가)
6월	9일(목)	Golf Outing - Split Rock Golf Club (45명 참가)
	16일(목)	Picnic - Rockland Lake State Park (50명 참가)
	23일(목)	Zoom seminar (슬기로운 supermarket)
7월	14일(목)	Golf Outing - Sunset Valley
	28일(목)	Barnes Museum Tour, Philadelphia
8월	11일(목)	Golf Outing - Valley Brooks
	20일(토)	뉴욕지역동창회 Picnic
9월	15일(목)	Golf Outing
	18-30일	한국방문여행
10월	12일(수)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20일(목)	Harriman State Park 산행
11월	3일(목)	Golf Outing
12월	3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1월	22-28일	골프트립, West Palm Beach, Florida
4월	1일(토)	신년교례회

7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강교속 (간호73) 이종대 (약대65)  
 구달회 (상대56) 이흥빈 (의대57)  
 권정덕 (의대58) 정수일 (대학원)  
 김병순 (사회82) 주상선 (공대73)  
 김태일 (공대68)  
 이용대 (약대63)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Google Chrome 활용요령; 매주 화요일 10-12시  
 Google Meet로 진행  
 문의, 홍종만 646-3426-2667  
 MS PowerPoint, 영상제작; 매주 토요일 10-12시  
 Zoom 화상강의로 진행  
 문의, 우규환 201-566-3665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T) 201-965-7759 (E) jaypkim@keiusa.com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주소 (Home): \_\_\_\_\_

입회비 \$200  
 연회비 \$100  
 후원금 (\$) \_\_\_\_\_